

오승우 화백 화업 60년 담은 대표작 27점 모교 조선대 기증



오승우 화백과 부인 정금애 여사.



‘미륵전’

국전 특선작 ‘미륵전’ 양림동 그린 ‘신록’ 1949년 초기작부터 최근 작품까지 망라 조선대미술관 내년 ‘오승우 기증 작품전’

화순 출신 오승우(86) 화백은 대한민국 미술전람회(국전)에서 1957년부터 1960년까지 4년 연속 특선했다. 31살에 추천작가가 된 그는 수십년 동안 열정적인 작업으로 한국 구상화단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이 됐다.

특히 그는 많은 작품을 국립현대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등에 기증하며 예술의 사회 환원을 실천해왔다. 특선작 네 작품 중 ‘금강계단-통도사’ 등 세 작품은 이미 기증했고, 마지막까지 갖고 있던 ‘미륵사’는 최근 모교인 조선대학교 품에 안겼다.

한국 구상미술계의 거목 오승우 화백이 60년 화업을 담은 작품 27점을 조선대학교에 기증했다. 연초부터 작품 기증 의사를 밝힌 오 화백은 “조선대 출신으로 후배 미술학도들을 위한 격려와 학교 발전에 기여하려는 마음”이라며 “내 생의 마지막 기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인 정금애 여사는 “남편에게는 분신과도 같은 작품이다. 아들·딸을 시집, 장가 보내는 것보다 더 쓸쓸하다”고 했다.

한국 인상주의의 선구자 고(故) 오지호(1905~1982) 화백의 장남인 오화백은 동생인 고(故) 오승운(1939~2006) 화백과 함께 미술 일가를 이뤘다. 그는 1983년부터 1993년까지 (사)목우회 이사를 역임하며 한국 구상미술계를 이끌어왔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93년 부친 오지호 화백에 이어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으로 선출됐다. 또 서울시문화상, 대한민국 예술원상, 성육문화대상,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 대규모 전시회 ‘오승우’전 참석을 위해 광주에 왔던 오화백은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세월에 대해 “그림에 미쳐 살았어요. 그저 열심히 많이 그렸을 뿐”이라고 했다.



‘신록’

오 화백의 평생을 관통하는 예술작업 키워드는 ‘전통의 근원에 대한 탐구’, ‘자연의 아름다움과 이상향의 추구’다. 이번 기증작에는 1949년 초기작부터 최근 십장생 작품까지 시기별로 뚜렷한 특징을 보이는 불상, 건축, 산, 십장생, 자화상 등 다양한 소재의 작품이 포함돼 있다. 1949년 19살 때 광주 남구 양림동을 그린 ‘신록(新綠)’을 비롯하여 1958년 제7회 국전 특선 작인 ‘미륵전(금산사)’, 전국 130여 개의 산을 직접 다니면서 작업한 한국의 100산 시리즈, 1990년대에 전작했던 중국을 비롯한 동양의 원형에 대한 탐구를 담은 작품 등이 망라됐다.

오화백은 화가로서 치명적인 시력의 저하와 안구 장애를 극복했다. 안구 수술을 한 탓에 늘 쓰고 다니는 짙은 선그라스는 그의 트레이드 마크다. 그는 “화가는 독서 등을 통해 안목을 키워야 하는데 눈이 양좋으니 책을 읽을 수가 없어 대신 여행을 많이 다녔다”고 말했다. 파리 등 여행지의 감흥은 그의 작품의 중요한 소재가 됐다. 조선대는 2018년 ‘오승우 기증작품전’을 개최, 오승우 화백의 삶과 예술세계를 조명할 계획이다. 문의 062-230-676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우리시대 마지막 선비의 고고한 묵향

광주시립미술관

11월 26일까지

‘매향, 근원 구철우’전

서예평론가 김병기는 그의 작품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선생님의 작품은 물과 같다. 무미, 무색, 무취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깊이의 서운기(書卷氣·서책의 기운)와 문자향(文字香·문자의 향기)이 배어 있다. 청고한 인품을 가진 선비의 향기가 깃들여 있다.”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전시중인 근원 구철우 선생의 작품을 보다 보면 그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조금은 낫맛해 보이는 근원의 작품은 찬찬히 들여다 볼수록 담백하고, 은은하고, 깊은 맛이 느껴진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흔들릴 것 같은 매화 꽃잎, 먹의 번짐의 매력과 활달함을 느낄 수 있는 굽직한 나무, 탐스러운 포도 알갱이들이 인상적이다.

생전에 그가 수없이 많은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렸을 작업실 모습과 낡은 붓과 벼루, 연적 등 선생의 손때가 묻은 유품들도 눈길을 끈다.

‘우리 시대 마지막 선비’로 불린 화순 출신 근원 구철우(1904~1989) 선생의 예술 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매향(梅香), 근원 구철우’전이 오는 11월 26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매년 지역의 원로 및 작고 작가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기획전을 개최하는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이 화순군(군수 구충근)과 공동으로 마련한 행사다.

어려서부터 ‘꼬마 명필’로 불리며 재능을 보인 근원은 지역의 명망있는 학자들에게 한학을 공부하고 서울 배재학당에 입학, 신구 학문을 두루 섭렵했다.

1928년 광주로 터전을 옮긴 후 허백련 문하에서 본격적으로 그림과 글씨를 배우게 되었고, 한국전쟁 시기에는 자택에서 5년 동안 매일 800자의 글씨를 쓰며 자신의 독자적 필법을 완성했다. 특히 그



의 ‘행서’와 ‘묵매도’(墨梅圖)는 명성이 자자했다. 국전 초대작가로 전남도 문화상을 수상했으며 연진회미술원장을 10년간 맡았다.

이번 전시에서는 송광사 지장전 현판 글씨 등 서예와 매화, 포도 등을 그린 묵화 작품 55여점을 비롯해 유품 50여점을 함께 전시, 선생의 흔적을 만날 수 있게 했다. 또 선생의 작업실을 재현했으며 생전 영상도 상영한다.

서예가 전종주는 그를 “높은 학식과

수행을 토대로 정류를 실천한 유일한 예술가였고, 은일과 유유자적의 지켜낸 선비정신과 어지러운 세상을 따듯하게 포용하는 인자(仁者)의 품도를 실천적으로 보여준 도인이었으며, 학통이나 학맥과 상관없이 이 시대에 존경할 수 있는 단 한사람의 참스승이었다”고 회고했다.

관람객 누구나 직접 붓으로 글을 써 볼 수 있도록 체험 공간도 마련했다. 개막행사는 25일 오후 4시 30분 열린다. 문의 062-613-7143 /김미은기자 mekim@

‘택시운전사’ 열풍에 5·18 다룬 책 재조명

‘소년이 온다’ 20만부 돌파…‘넘어 넘어’ 10쇄 넘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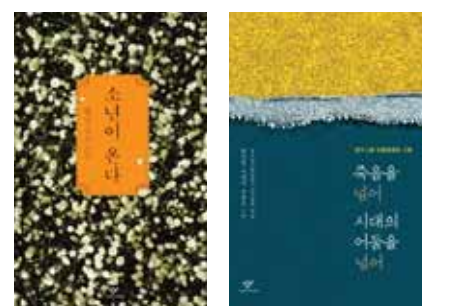
영화 ‘택시운전사’가 관객수 1000만을 넘어서고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민중항쟁 당시 헬기사격 사건 특별조사를 지지하면서 ‘5월 광주’가 다시 조명받고 있다. 광주의 진실을 다룬 책들에도 독자들의 관심이 다시 쏠린다.

23일 출판사 창비에 따르면 한강의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가 최근 33쇄를 찍고 20만 부를 돌파했다. 2014년 5월 출간된 ‘소년이 온다’는 계엄군에 맞서다 죽

음을 맞게 된 중학생 동호와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소설가 황석영이 대표 집필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넘어넘어)는 지난 5월 전면개정판이 나오지 3개월 만에 10쇄를 돌파했다.

발행 부수는 1만5000 부. 3만원 가까운 가격과 600쪽 넘는 ‘벽돌책’임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



기록물로 꼽히는 ‘넘어넘어’는 1985년 초판이 출간 이후 ‘지하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하며 광주의 진실을 알렸다. 영화 ‘택시운전사’ 속 외신기자의 모델인 위르겐 힌츠페터의 활약도 실려 있다. /연합뉴스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호텔 수영장

신양파크호텔 여름 패키지

스탠다드룸 1박 + 조식 2인 + 사우나, 수영장 2인

₩110,000원 (세금포함)

객실예약 228-8000

광주일보 제휴 패키지로 예약주시는 분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신양파크호텔과 함께하실 임대업장 사업주를 모집합니다!

- ▶ 임대업장 : B1 노래방 / F2 한식당
- ▶ 상담 및 문의 : 062) 221-4172 총무과
- *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방

한식당